



오늘의 복음 묵상

“타인에게는 자비롭게,
자신에게는 겸손하게,
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단호하게”

- 예수님의 단호함은 미움이 아닌, 하느님 나라를 가로막는 **위선에 대한 사랑의 경고**입니다.
- **타인에게 자비롭기 위해**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.
- 내 자존심은 기꺼이 양보하되, **사랑과 정의·생명의 가치**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.
- 인간의 고통과 존엄이 짓밟히는 자리에서는 **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지 않는 용기**가 필요합니다.

“주님, 저희에게 자비와 겸손, 그리고 참된 가치를 지켜낼 용기를 주소서.”

아멘.